

# 암사동 움집 복원 고 (岩寺洞 움집 復元 考)

金 鴻 植

<명지대 교수>

## 目 次

- |            |        |
|------------|--------|
| 1. 머리말     | 3. 복원  |
| 2. 움집의 짜임새 | 4. 맺는말 |

## 1. 머리말

### (1) 복원의 의의와 경위

본 주거지는 우리 나라 신석기(新石器) 시대의 몇 안되는 집자리일 뿐 아니라 집단적으로 모인 취락 집터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유적이다. 이것을 국민교육의 장으로 공개하자는 논의는 여러 차례 반복되었으며 몇 번의 회의를 거쳐, 전시관을 건립하고 「암사동(岩寺洞) 수혈주거지(竪穴住居址) 복원(復元) 기초조사(基礎調査)」를 하게 되었으며 필경 움집을 복원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도면으로만 상상하던, 혹은 조그만 모형 정도의 연습과는 달리 실제의 크기 그대로 제작하므로써 상상과 연습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아마도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복원의 의의라하겠으며 여기서는 그에 대한 내용을 조금의 윤색도 없이 그대로 기록한다.

움집 복원에 대한 의론은 일찍부터 있어 왔으나 구체적으로 모형을 제작하고 설계에 착수한 것은 1984년이다. 몇 차례의 회의와 2번의 움집복원 소위원회 및 문화재 위원회를 거쳐 실제 복원설계에 착수하였다. 움집 복원은 1985년 4~5월(4호, 6호)과 9~11월(3호, 5호, 11호)의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모형제작, 1/2모형, 서너번의 실험제작을 거쳐 완성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실험단계인채 세워진 것임을 인정한다. 참고로 움집복원소위원회는 김원용 박사, 임효재교수, 김정기 소장, 김기웅 전문위원 등이었으며 기타 관계담당자 다수가 참여하였다. 일일이 호명하는 것을 생략한다.

### (2) 기본 전제

암사동(岩寺洞) 움집터는 B.C. 4,000년 전후 빗살무늬토기 문화층의 집자리로서 좁은 지점에 집단적으로 분포하는 취락 유적으로서 조명되고 있다.(암사동(岩寺洞) 수혈주거지(竪穴住

居址) 복원기초조사(復元基礎調査) 보고서(報告書), 암사동(岩寺洞) 유적(遺蹟) 발굴조사단(發掘調査團). 1984. 4쪽 재인용) 그러나 이것이 같은 문화층(상세한 발굴보고서가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의 유적이라 할 지라도 동시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오랜동안에 걸쳐 (최소 100년 단위 이상) 지어졌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1호와 2호는 2개의 집자리가 겹쳐 있으며 8, 9, 10호 집자리는 3개가 중복되었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4호와 5호 및 7호와 8, 9호의 집터는 너무 가까워서 설사 움집자리가 겹치지는 안했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같은 기간에 세워지지 않는 것을 것이라고 추측된다.(집자리의 번호는 상기보고서에 따른다.)

움집은, 사람이 떠나지 않고 손질해 가면서 계속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수명(기둥굽이 썩어서 덧기둥을 세워도 곤란할 정도의 기간)을 50년 내외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이 뭉게져서 다시 다른 집이 들어서기까지는 최소 50년 이상이 소요되어, 한 집자리가 지어져서 완전 인멸하기까지 대략 100년 이상이 걸린다고 추측된다. 따라서 암사동 움집은 300~500년 이상의 긴 기간에 걸쳐서 지어졌으리라고 믿어진다.

아무리 굵뜨게 진행하는 같은 문화기(층)에 건축된 집이라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지어지면 짓는 사람의 솜씨와 생활상의 요구가 달라지므로 말미암아 그것의 형태는 상이하게 된다. 특히 집만을 짓는 전문인이 아닌 일반 사람이 만들 때는 집을 짓는 원칙(법식(法式))은 무시되며 그것이 간이한 구조물일수록 그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와 같은 집 짜임새의 다양성은 거기에 관통하는 공통적 현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 원시 집자리에 관한 연구, 김용남. 1975. 162쪽) 사람이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엮는 가장 간이한 구조물은, 요구되는 구조적 강도를 얻기 위한 방법의 제한 때문에 서로 유사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본 유적지의 집자리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서로 다른 평면의 크기, 모양 및 기둥의 수와 위치 등의 상이점이 있다. 그런가운데서도 공통적 특색이 발견된다. 움집 가운데 배치된 1개의 화덕자리, 비교적 네 귀에 몰아 있는 기둥구 등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어진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능할 수 있는 여러가지의 구조체를 상상해 봐야 하며 단순한 구조만으로 가정해서 있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된다. 4개 이상의 기둥을 갖는다는 것은 벌써 상당한 수준의 구조기술이 축적되었음을 의미하며 이것의 짜임새는 단순하지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구조기술의 발전에 대한 일반적 운동성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단순한 일원론적(一元論的) 방법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건축의 짜임새가 간단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만 진행된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기술의 발전은 바닷물의 운행과 같이 간단한 것에서 복잡한 것, 다시 간단한 것으로의 끊임없는 반복 운동에 의해 어느 사이 크고 복잡한 것으로 발전해 간다. 따라서 몇개의 기둥을 갖는 움집이 간이한 뼈대로 되었으리라는 추리는 위험한 발상이다. 똑같은 수의 기둥을 세우고도 그 위에 엮어지는 뼈대는 여러가지 방법을 상정해 볼 수 있으며 각기 다른 형태의 창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교육의 목적으로 복원되는 이와같은 작업은 추정 가능한 실증적 고증에 따라 한 가지로 통일되어 제시되어야지, 학문적 요구에 입각한 다양한 실험제작은 오히려 혼란만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움집의 복원은 한가지 뼈대로 이루어졌지만 본 논문에서는 추정 가능한 것까지를 포괄적으로 다루어 보고져 하며 기존 복원도를 옹호하거나 휘감하려고 의도하지는 않는다.

### (3) 쓰임말의 정리

여기에서 쓰인 말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은데 이것은 여러 지역의 쓰임말들을 골라서



붙임서까래 : 추녀 혹은 다른 서까래에 붙여 만드는 서까래  
 너시래 : 이영을 받기 위해 서까래 위에 가로로 걸쳐지는 부재. 진새를 받지 않을 때는 조금 드문 드문 보내므로 너시래이고 자주 보낼 때는 산자라 함  
 이영 : (비교 나래 : 이영의 한 날개 이름. 구사 : 나래를 뜨는(엮는) 것)  
 주저리 : 꼭지에 덮는 용마름  
 매 : 이영을 매는 줄(가르매 : 세로로 갈라지는 줄. 장매 : 가로로 길게 보내는 줄)  
 테(매기) : 이영의 맨 밑에 이영을 눌러주고 가르매를 매기 위한 테 또는 테를 묶는 끈(방법)  
 어리땅 : 이영이 바람에 뒤집히지 않도록 눌러 놓는 나무.  
 지새미 : 출입구, 처마 등에서 너시래에 세로로 받을 엮어 올려 놓고 처마 이영을 조금 길게 뺄 수 있게한 부재.  
 도리심 : 도리를 묶는 끈(방법)  
 알콘베이 : 추녀 꼭지를 묶는 끈(방법)  
 서실노 : 너시래를 서까래에 묶는 끈  
 코신노 : 너시래와 너시래를 가운데서 묶어주는 끈(제주말. 노는 밧줄이란 뜻)  
 까치구멍 : 추녀의 꼭지와 닭머리남으로 만들어지는 연기 빠지는 구멍  
 휘잡 : 서까래 맨 밑둥 어깨와 만나는 곳에 놓이는 특히 굵은 너시래  
 순넝이 : 억새 또는 짚의 밑둥 쪽

## 2. 움집의 짜임새

### (1) 재료

구조체의 재료로는 당시 물가에 사는 나무로서 여러가지 종류가 제시된다. 버드나무, 느릅나무, 오리나무, 팥배나무 등이다. 특히 버드나무와 오리나무는 물가에서 잘자라고 재질이 물러서 채취하기가 좋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산림청 조재명 이용부장님 말씀) 한편 우리나라 산야에 지천으로 깔린 소나무와 참나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실은 한가지의 나무를 쓴 것보다는 여러가지 종류의 나무를 가리지 않고 썼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복원의 목적상 간단·명료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우리가 예전부터 통상 건축자재로 많이 이용했던 소나무와 참나무를 제안하게 되었다. 소나무와 참나무는 모두 습기에 약하다는 흠을 가지며 특히 소나무는 생나무를 사용할 경우 진이 나오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참나무로 선정되었다. (위원회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굴한 전시관 내부의 유구 가운데 남아 있는 숲을 채취해서 그대로 설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채취불능으로 실행되지 못했다. 춘천의 중도에서 채집된 숲은 필자가 산림청에 의뢰해서 분석해 본 결과 버드나무로 판정되었다.)

너시래의 재료는 역시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구하기 쉽고 자주 사용되었던 싸리나무가 제시되었으며 의의가 별로 없었다. 이영의 재료는 여러가지가 제안될 수가 있는데 태백산맥에서 나오는 새, 제주도 산출의 새, 산골 아무데서나 자생하는 억새(갈대) 등이다. 후자는 비가 잘 새고, 잘 썩는 약점이 있지만 다른 재료는 이 지역에서 자라지 않는 것이므로 이영 재료로서 후자를 선택했다.

묵은 끈(노)의 재료는 칩과 땡땡이가 있으나, 후자는 힘이 약하고 채취가 어려운 재료이므로 특별한 세공물(세공(細工))에나 쓰였을 가능성이 높고, 역시 우리나라 아무데서나 구할 수 있는 칩이 가장 적합한 재료로 지적되었다.

## (2) 뼈대

움집의 뼈대를 상상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움벽을 이루는 어깨선과 기둥굽자리일 것이다. 어깨선의 형태는 집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1호, 3호, 7호 집자리가 둥근꼴이며 나머지는 모두 모죽인 네모꼴로 여겨진다. 기둥굽자리는 파괴된 집자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5개 이상인데 집자리가 둥근꼴이면서 규모가 가장 작은 7호에서는 단 하나의 기둥굽자리도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집자리가 둥근꼴인 경우의 구조는 네모꼴인 경우와 다를 수 있으므로 우선 후자의 뼈대부터 추정해 보기로 한다. 이 가운데서 기둥굽자리의 수가 비교적 적고 정형화(규칙적으로) 된 것은 4호, 6호와 11호이다.

4호는 기둥구멍이 네 귀에 반듯하게 놓여 있고 어깨선도 대체로 기둥 머리에 걸쳐지는 도리선과 비슷하다. 다만 동쪽 기둥 곁에는 조그만 구멍이 따로 나 있으며 남쪽기둥은 마치 2개의 기둥이 겹으로 세워진듯한 느낌을 준다. 이것은 뼈대집 민가에서 흔히 쓰는 수법으로서, 대개 백이기둥이란 20년이 지나면 밑둥이 썩어서 힘을 받을 수 없으므로 덧기둥을 세워서 보강한다. 보통은 알맞게 잘라서 적당한 위치에 받치고 조그만 판돌을 주초로서 끼워두지만, 당시에는 백이기둥이 일반적이었고 또한 톱이 없었으므로 기둥을 알맞게 자르는 것보다는 기둥굽을 묻는게 간편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6호 집자리는 이곳에서 가장 크며 약간 긴네모꼴이다. 움집바닥은 2단으로 되었는데 안쪽은 둥근꼴로서 화덕을 중심으로 둘러 앉는다면 바깥 단에 사람이 돌아다니기 편리하게 계획되었다. 아마도 여느 집자리와는 색다른 기능을 가진 움집이라 생각된다. 안쪽에는 기둥굽자리가 하나도 없으며 바깥쪽 움집바닥에만 대체로 네귀에 몰려있다. 아마도 안쪽에 탄 구조체를 두지 않고 바깥 어깨선을 따라 뼈대가 완성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기둥구멍은 북쪽과 동쪽에 각각 3개, 2개가 있는데 4호집과는 달라서 어느것 하나를 선택해서 도리선을 그어도 굽자리가 일직선 상에 놓이지 않는다. 필경 어깨선과 나란한 도리선 상의 기둥굽자리를 원위치로 상정하고 나머지 기둥구멍은 추녀나 혹은 불임서까래를 덧 받친 기둥굽자리로 상정해 본다. 특히 북동쪽 모서리 중앙에는 돌곳(저장고)이 내밀어 있으므로 이쪽의 뼈대가 단순치 않았으리라 추정된다.

11호 집자리는 어깨부분이 많이 유실되었다고 생각되나 기둥구멍은 정확히 남아 있다. 네 귀에 각각 1개씩 있고 집의 중앙에 또 하나가 있다. 그러나 이 집자리는 도리선과 어깨선이 나란하지 않으며 특히 동남쪽 모서리는 아주 비뚤어졌다. 이 때문에 여느 집과 다른 형태의 뼈대를 상정해 볼 수 있으며 가운데 기둥(마루기둥)이 단순한 보조로서의 덧기둥이 아니고 정형화된 구조 법식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 점은 앞 책 암사동 조사서에서도 주장되었지만 다양성의 회복은 국민교육의 차원에서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하여 고려되지 않았다.)

이와 유사한 기둥구멍은 9호 집자리에서도 나타난다. 지금 남아 있는 기둥구멍은 3개밖에 없지만 대체로 세 귀에 정형화되어 자리하고 어깨선과 도리선도 비교적 나란히 놓여진다. 이것은 1호 집자리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북쪽변의 가운데에 자리한 2개의 기둥구멍이 의심스럽긴 하지만 그것이 도리선 상에 놓이므로 덧기둥으로서 도리를 받친 것이라고 상상하

면 이해하기 어렵진 않다.

기본적으로 백이기둥 4개가 세워져서 뼈대를 이루는 쌍다리형이나 까치구멍집(한쪽은 모임지붕이고 다른 쪽은 합각을 만든 집)이 되는 것이다.(줄고, 선사(先史)시대 살림집의 구조(構造)에 대한 연구. 문화재(文化財) 11호. 1977. 100쪽. 여기에서 까치구멍집은 움집의 발전형으로서 합각형으로 설명되었으나 합각형은 마땅히 까치구멍집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기둥머리에 도리를 얹는 것을 상상케 한다. 현 전시관 내부에 묻혀있는 숯덩이 상태의 뼈대를 살펴보다도 알 수 있다. 서까래 열과 이것에 가로질러진 횡가재의 조각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도리가 없는 구조를 상상해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유일하게(유실 정도가 너무 심한 12호는 제외하고) 기둥구멍이 없는 7호 집자리는 어깨선이 등글면서 규모가 작다. (상기 보고서에서는 부속시설로 추정했으나 화덕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살림집의 일종이라고 봐야 될 것이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꼬깔지붕을 한 원뿔형집으로 추측할 수 있다. 구조체는 지금도 중부내륙 지역에서 김치각으로 많이 지어지는 바와 같이 3개의 추녀를 세워서 알콘베이로 묶고 그 꼭지에 닭머리남을 댄 다음 여기에 가지가 많은 평서까래를 걸쳐댄다.(추녀는 4개를 쓰면 묶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3개를 쓰며 지상에서 묶어서 여럿이 함께 세운다.) 가지가 없는 것을 쓸 경우는 밑등을 아래로 하지만 가지가 많은 것을 이용할 때는 밑등을 위로 한다. 가지가 많으면 일일이 동서까래나 불임서까래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대개의 경우 평서까래와 가지(많은) 서까래를 섞어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을 너시래로 엮어서 집을 만든다면 서까래가 약하기 때문에 군데군데 적당히 받치지 않으면 안되었을 것이다. 또한 집의 규모가 커지면, 정식으로 쌍다리집을 구축한다 할지라도, 덧기둥을 많이 세우지 않으면 안되었을 것이다.

이런집은 3호와 5호이다. 기둥굽자리들이 네모꼴 도리선과 일치하고 있지 않고 어깨선이 비교적 등글며 특히 3호 집자리는 도리선과 어깨선도 나란하지 않다. 이런 집들은 서까래가 가늘고 가지가 많은 것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많으며 지붕의 모양도 꼬깔처럼 직선이 아닌 양과 모양을 했을런지도 모른다.

### (3) 지붕틀

공사의 순서는 대략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다. 먼저 알맞는 집터를 잡으면 집자리를 적당히 판다. 이때 나온 흙은 집 주위에 뿌리며 멀리 저 나르지 않는다. 소정의 깊이까지 파내면 기둥을 세우고 도리를 올려서 그 위에 추녀와 서까래를 걸쳐댄다. 어느정도 뼈대가 완성되면 집자리를 정리하면서 나온 흙으로 어깨 주변을 돋아 외부의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한다. 기둥은 묻지 않으면 다음 공정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묻지만 서까래는 도리에 걸쳐대는 것이므로 생토 위에 바로 걸친다. 물론 돋아지는 흙으로 서까래 밑등은 묻히겠지만 이것은 생토가 아니므로 집자리가 유실될 때 쉽게 마멸될 수 있다. 따라서 평면의 형태가 결정되고 뼈대가 마련되는 것이 아니고 뼈대가 구성된 다음 그것에 맞추어서 내부의 용도(기능)에 맞는 평면형태를 만들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구조기술이 저급한 단계에서는 뼈대방법(외형(外形))이 사회적 욕구(내용(內容))를 제약한다.

이와같은 이유로, 서까래굽자리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서까래 밑등은 대체로 어깨선과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놓여진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볼 때 추녀는 양쪽 도리가 맞춰지는 귀에 놓여지지 않는다.(이점은 줄고 위책이나 암사동 보고서 위책에서 모두 큰 오류를 범하였다.) 귀에 놓이게 되면 추녀의 길이가 길어져서 구조역학적으로나 시공상 대단

히 불리하게 되며 집자리의 모양도 모가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모가 네모로 반듯한 집자리는 11호의 북쪽 밖에 없으며 나머지는 모두 모가 죽어 있다. 따라서 추녀를 지금처럼 귀에 쓰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

시공상이나 구조 역학상 가장 간편하고 튼튼한 방법은 도리 중간에 추녀를 걸쳐서 하나의 꼭지점을 만들고 추녀머리에는 닭머리남을 가로질러 여기에 각종 서까래를 올리는 방법이다. 이것은 몇 가지 모순점이 발견된다. 우선은 꼭지에 만들어지는 까치구멍이 집자리의 도리선과 나란하지 않는 것이며, 둘은 이럴 경우 어쩔 수 없이 귀의 서까래는 평서까래 없이 모두 동서까래로 꺾여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적당히(대중 없이) 도리 하나에 추녀 하나를 빗겨 걸어서 4개의 추녀를 한꼭지점에 모이게 한다음 여기에 닭머리남을 올리고 나머지는 불임서까래, 혹 지붕경사가 맞지 않을 경우는 동서까래를 써서 지붕물매가 꺾여지는 것도 감수한다. 이 방법이 본 복원에서 시도했던 것인데 여기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기둥이 어깨선과 너무 가까이 있어서 일매진 물매처리가 어려웠으며 심지어는 도리 맞춤부분이 지붕 밖으로 튀어나오기도 했다.

이 가운데 가장 모순이 많았던 짜임새는 6호 집자리이다. 평면의 형태가 긴네모꼴에 규모가 유난히 컸기 때문이다. 하나의 꼭지를 갖게 짜임새를 만들다 보니 한쪽은 물매가 뜨고 다른 쪽은 물매가 싸게 처리되었으며 모두 동연을 사용하여 꺾임지붕을 억지로 만들지 않으면 안되었다. 여기서 제시될 수 있는 방법은 2개의 꼭지가 있고 용마루가 있는 지붕틀의 상정이다. 짧은 변에는 추녀를 하나씩 걸치고 긴 변에는 각각 2개씩 걸쳐서 3개씩의 추녀를 가지고 하나의 꼭지(각집)를 만들어서 각 꼭지 사이에 용마루(말대)를 보낸다. 여기에 서까래를 걸치는데 이것은 자연히 모임지붕의 형태가 된다. 그렇다고 까치구멍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한꼭지의 용마루는 좀 길게 빼내고 그 끝 아래에는 지르메걸이(이때는 닭머리남이 아님)를 양쪽의 추녀 위에 올려댄다. 지르메걸이의 양끝은 지붕에 맞춰 자르고 용마루 끝에서 지르메걸이 끝을 연결하면서 아래로 평서까래를 건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세모꼴 구멍이 까치구멍인 바 지금도 태백산맥 줄기의 산간지대에서는 통상 이용되는 뼈대 기법이다.

이것은 몇가지 이유에서 타당성을 갖는다. 긴네모꼴 평면형태에는 가장 알맞는 구조라는 것이며 집의 짜임새가 무리없이 구성될 수 있다. 시공도 간편하며 구조 역학적으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화덕이 주로 겨울철의 이용시설이라고 가정할 때 바람이 심한 북서쪽은 막고 반대편에는 까치구멍을 만들어서, 연기가 잘 빠지고 찬바람이 잘 들어오지 않는 장점을 지닐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11호 집자리의 가운데 기둥은 지붕 꼭대기에 용마루를 올려놓는 마루기둥일 수 있다. 이 움집은 바닥의 깊이가 낮을 뿐 아니라 도리선이 어깨선과 가까이 근접해 있어서 같은 기둥높이를 둘 경우 물매가 대단히 급해지는 경향을 볼 수 있으며 기둥을 조금 낮추더라도 기둥굽자리가 네 귀에 반듯하게 놓이질 않았기 때문에 꼭지가 한 곳에 모아지지 않는 경향을 갖는다. 따라서 중앙 마루기둥의 아장구 위에 짧은 용마루를 동서로 걸치고 결구해 간다면 무난하게 어깨선에 맞춰 짜임새를 만들어 갈 것으로 추측된다.

여타 움집의 서까래를 걸쳐가는 방법은 상론하지 않겠지만 역시 가장 애로가 많았던 부분은 기둥굽자리가 어깨선에 너무 가까이 있을 경우이다. 3호 집자리의 남쪽과 서쪽 모퉁이, 4호의 북쪽을 제외한 세모퉁이 등이다. 이런 둥근꼴(모 죽은 바른네모꼴) 집자리의 지붕틀도 두개의 꼭지를 갖는 짧은 용마루를 상상해 볼 수 있으나 위에 지적한 바와 같이 가지(많은) 서까래나 혹은 가는 부재의 서까래를 써서 양과처럼 약간 둥근 지붕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은 여전히 유효하다. 어차피 이와 같지 않다면 동서까래를 쓸 수 밖에 없는데 당시의 생산기술로는 부재를 자주 잘라서 쓰는 것보다는 운반하기 약간 불편하지만 긴 부재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가는 부재를 썼을 것이다.

종합하면 6호 집자리는 긴 용마루를, 11호는 짧은 용마루를 갖는 2쪽지의 움집이며 나머지 3호, 5호는 양파 모양의, 4호는 모가 둥근꼴의 지붕 형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 (4) 이음과 맞춤

이음과 맞춤은 장부를 만들거나 따내지 않고 그냥 겹쳐대고 노로 묶는 방법을 썼을 것이다. 노(밧줄)의 재료는 역시 칩닝쿨이 타당성이 있다. 칩닝쿨은 마르면 나무처럼 단단해지고 꺾어지는 성질이 있으므로 물속에 담궜다가 사용한다. 물 속에 열흘쯤 담궜다면 부드러워져서 쓰기 좋은데 마르면서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기(?) 때문에 팽팽히 당겨서 묶어 놓은 것도 마르면서 헐거워진다. 그러나 아직 굳기 전 가을에 채취한 것은 부드러워서 쓰기도 좋고 팽팽히 잡아 당기기에 알맞다. 아마 당시에도 가을에 집을 지었으리라 생각된다. 겨우살이 준비이기도 할 뿐 아니라 이영, 나무, 칩 등의 재료 채취에도 적당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묶는 방법도 여러가지 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기본조건은 만족되었을 것이다. 노를 자주 끊어 쓰지 않고 긴 채로 쓴다. 자주 이으면 강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자주 자르기도 번거로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묶는 방법은 단단하면서도 간단한 것으로 선택한다. 이것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공통된 원칙이다. 오히려 묶는 방법은 지금보다 발달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의 끈의 문화기로서 모든 물건의 접합에 끈을 이용했으며 이것은 생산력의 확대에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묶는 방법은 옛 민가의 건축에 이용되었던 방법을 쓰며 흠매치는 것을 극력 피하였다.

기둥은 백이기둥으로서 아장구가 있는 (두 가지가 벌어지는) 나무를 선택해서 세웠을 것이다. 그 위에 도리를 얹고 묶는데 2개를 동시에 묶지 않고 우선 하나만 묶는다. 2개를 동시에 묶자면 단단히 잡아매 수가 없기 때문이다. 도리심을 매는 방법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의 끝을 도리 몸에서부터 매 온다. 노의 제살을 물려서 끝이 빠지지 않도록 2번쯤 돌린다음 기둥머리를 X자로 휘감는다. 이때 노가 기둥머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자연히 기둥몸을 둥그렇게 감게 되며 이렇게 하길 3번씩 한다. 마지막으로 그 끝을 다시 도리몸에 돌리고 제살 물린 고리에 끼워서 처음 끝을 잡아당기면 양 끝이 모두 자기 노에 물리게 된다. 이것은 끈을 매는 사람들이 통상 쓰는 수법으로서 흠매치면 잡아 묶는 순간 줄이 늘어나기 때문에 잘 쓰지 않으며 또한 칩과 같은 나무 성질은 꺾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도리와 기둥이 묶어지면 도리 위에 다른 도리를 얹는데 기둥 심에서는 약간 벗어나게 한다. 왜냐하면 3부재의 접합을 한 곳에서 하게되면 튼튼하게 매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간단하게 X자로 매는데 어느정도 묶어지면 마지막으로 도리와 도리 사이에 끈을 가운데로 잡아매서 노가 새뜨지 않고 단단하게 묶이도록 한다.

육면체 모양으로 묶어진 뼈대는 비록 기둥굽이 땅 속에 묻혀 고정되었다 할지라도 횡력이나 비틀림에 대해 대단히 연약하다. 따라서 도리와 도리가 맞추어지는 귀에 산방남을 덧대고 세모꼴로 묶는다. 이것은 오랜 전통적 기법에서 흔히 쓰이는 방법이다. 묶는 수법은 휘감아 돌리고 새뜨지 않도록 중간을 잡아 맨다.



도리 위에는 우선 추녀를 걸치는데 한 꼭지점에 끝이 모아지면 도리와 추녀는 X자 묶기로 두어번 이상 묶고 그 끝은 수평으로 서너번 휘감은 다음 추녀와 추녀 사이를 해집고 수직으로 두번 휩조여서 끈이 느슨하지 않게 한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중요한 묶음으로 특별히 알콘베이라는 이름이 있다.(깍지울을 만들 때 쓰는 말이다. 원래는 알콘베이를 따로 지상에서 묶고 추녀를 운반해서 도리에 올린 다음 도리와 추녀를 묶는다.)

추녀와 추녀 사이는 서까래를 걸쳐대는데 모두 튼튼한 X자 매기로 하되 한겹, 경우에 따라서는 두겹 정도 매며 노는 끊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가고 흘매쳐 잇지는 않는다. 추녀 끝 까치구멍의 평서까래 끝이 모이는 곳은 추녀 아래로 산방남을 걸쳐 매는 바 평서까래 끝과 함께 묶어간다. 대개 빙글 빙글 돌리는 일자매기이고 외벌~두벌이며 X자로 묶지는 않는다. 붙임서까래는 역시 둘둘 말아감는 일자매기이고 여러번 감으며 마지막은 사이를 돌려 묶어 끈이 느슨하지 않게 조치한다. 이렇게 하면 몇 사람이 동시에 올라가서 작업을 해도 끄떡없는 튼튼한 뼈대가 완성된다.

## (5) 지붕

지붕의 물매는 움 안에서 도리를 보통사람의 머리에 부딪치지 않도록(대략  $h=170\text{cm}$ ) 놓고 이것과 어깨선에 맞춰 서까래를 걸었을 때 생기는 자연스런 경사로 잡았는데 움집의 깊이, 도리선과 어깨선과의 거리 등에 따라 각기 다르지만 평균 물매는 10 : 11.6 내외로서 지붕의 경사각은 50°정도가 된다.

서까래 위에는 수평으로 너시래를 돌리는데 이것은 손으로 꺾기 좋을 만한 가느다란 싸리나무를 몇 가닥씩 묶어서 쓴다. 너비는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김정기 소장님의 고증에 따라 지붕 작업때 자유롭게 다녀도 발이 빠지지 않을 정도인 한 뼘 정도의 거리를 유지했다. 이것은 진새가 올라가는 산자의 간격 보다는 훨씬 뜬 간격이다. 아래에서부터 묶어서 차츰 위로 올라 가는데 잡아 매는 방법은 그림과 같다. 끝을 제살로 묶은 다음 너시래를 곁에서 앞으로 휘감으며 심에서 빗으로 감아 서까래에 붙이면서, 서까래 안으로 돌려 일자매기를 하고 다시 너시래를 곁에서 위로 휘감아 올라간다.

이렇게 각 서까래에 한사람씩 몇 사람이 서서 매어 올라가면 쉽게 일을 마칠 수 있다. 너시래는 까치구멍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고 싸리나무가 휘어지는 정도까지 적당히 올라가며 맨 아래는 어깨를 정리한 다음 휘감을 돌려야 한다. 이것은 싸리나무 가운데 조금 굵은 것을 골라서 1~2개씩 이으면서 묶어 가는데 이것만은 맨 마지막에 매는 것이므로 노를 따로 수평으로 묶는다.

다음은 서까래 너비가 떠서 집중하중을 받으면 너시래가 부분적으로 꺾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서까래 가운데로 코신노를 엮어 간다. 코신노를 묶는 방법은 간단해서 휘감에 노 끝을 매고 다음은 너시래를 한번씩 휘감으면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간다. 대개는 도리를 조금 지나서 서까래 틈새가 한 뼘 정도로 줄어 들면 중지한다.

## (6) 이영

이영은 억새(풀)로 나래로 만들어 엮는다. 구사는 칙냉쿨을 반쪼개 쓰며 2개의 줄을 서로 교차시키면서 그 사이에 한줌씩의 억새를 넣어 엮는다. 매는 위치는 억새 순냉이 반뼘쯤 아래이다. 이렇게 길다랗게 나래가 만들어지면 한 사람이 운반하기 알맞을 정도로 동아리를

들어준다. 이영을 엮을 때는 맨 아래부터 이어 올라가는데 처음은 두겹쯤 순냉이가 아래로 가도록 놓고 서로 겹쳐가면서 이어간다. 이렇게해서 속살이 어느정도 올라오면 맨 마지막에 겹을 올리는데 이때는 맨 아랫두리도 역시 순하게 끝이 아래로 가도록 엮는다. 그 끝은 아무래도 깨끗하게 매듭되지 않지만 곧 비를 맞으면 썩어져서 자연스럽게 마감된다.

이영의 맨 위는 연기가 빠질 수 있는 까치구멍을 남겨 놓고 닭머리남 위까지 올린다. 추녀가 교차되는 꼭지 위에는 주저리를 엮어서 까치구멍으로 빗물이 들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밖에서는 까치구멍이 없는 것 같지만 안에서는 확연하게 확인 할 수 있다. 이영 잇기가 끝나면 이것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매(줄)를 매어야 한다. 우선 매를 묶기 위한 테를 지붕 맨 아래에 묶는다. 테는 보통 굵은 싸리나무를 쓰거나 작은 나무가지를 사용한다. 안쪽 서까래나 휘감에 튼튼히 잡아 묶는 것을 테매기라 한다. 여기에 매를 묶는데 가로로 길게 보내 매는 걸장매, 세로로 짧게 매는 걸 가르매라 한다. 먼저 장매를 보내고 다음에 가르매를 거는데 장매의 숫자는 많고 가르매는 적으며 가끔 휘감아 묶어 둔다. 매 역시 칩닝쿨을 이용하되 한 줄은 너무 연약했으므로 두 줄을 동시에 썼다. 그러나 서로 꼬지는 안 했는데 이것은 칩닝쿨의 성질상 꼬면 오히려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칩닝쿨은 이영을 잠재우는 역할만하고 금방 썩는 것이므로 이영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지붕 군데군데에 나무를 가로 질러 놓는다. 이것을 어리땅이라하며 굵지 않고 손쉬운 잡목을 쓴다.

## (7) 마감

출입구의 뼈대는 입구 양쪽에 새끼기둥을 세우는 방법과 그렇지 않고 바로 서까래를 걸치는 수법이 있는데 후자는 집의 규모가 작고 지붕의 물매가 싸며 출입구가 앞으로 비쳐 나오지 안했을 경우 흔히 쓴다. 따라서 여기 집자리와 같이 출입구가 앞으로 튀어 나오고 물매가 뜰 때는 전자의 방법에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출입구 양쪽에 조그만 기둥을 박고 머리 아장구에 조그만 처마도리를 걸친다. 이때 기둥 높이는 사람이 허리를 굽히고 기어올라 갈 수 있는 최소의 높이이다. 이 보다 더 낮으면 드나드는 것이 너무 불편할 것이고 높으면 지붕물매 처리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처마도리와 도리 사이에 서까래를 걸치고 그 옆에도 적당한 간격을 띄워 동서까래를 붙인다. 옆구리는 움집의 너시래가 가로로 이어져서 마감지워지며 위는 새로 만들어 가로로 걸쳐대는데 조금 배게 쓰므로써 출입하는 천장의 모양새를 갖춘다. 처마도리 위에는 지새미를 한 뼘 정도 내빼는데 이것은 가느다란 싸리 가지를 앞쪽만 발췌듯 엮어서 처마 끝에 엮어두는 것이다. 이것은 이영을 그만큼 내빼어서 이영 끝이 썩어 들어갈 때, 힘을 받는 처마도리를 보호하고 집 안으로 지시랑청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옆구리의 이영은 움집 지붕 이영을 가로로 이어서 만들며 출입구 상부 지붕은 움집 위의 지붕을 연장하여 엮는데, 현실적으로 출입구 지붕과 움집 지붕이 만나는 곳에 취약점이 많았으므로 조금 북돋아 속살을 넣었으며 출입구 상부 지붕도 앞으로만 물매지게 하지 않고 말갈기처럼 가르마를 타서 양쪽으로 물매가 잡히도록 고려하였다.

출입구의 계단은 토단으로 단이 있는 경우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측하였지만 단이 깊은 경우 큼지막한 판돌을 하나 갖다 놓거나 혹은 큰 통나무를 묶어서 디딤판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통나무를 발판처럼 세로로 걸쳐서 이용하는 것은 선사인의 생활형태로 미루어 고려되기 어렵다고 추론되었다.(김정기 소장님 지도)

출입구의 문은 발의 형태와 문의 모양 두가지가 제안되어, 하나는 여름의, 다른 하나는 거

울의, 계절용 시설물로 생각했다. 발은 싸리나무로 만든 것이고 문은 사방으로 울거미를 대고 사이에 싸리나무 외를 붙인(위에 이영을 덮은) 형태이다. 모두 위 울거미를 칩으로 처마도리에 매달고 지게발로 받칠 수 있도록 계획했을 것이라고 상상했다.

움집 바닥에는 지붕을 잇는 억새풀로 돛자리도 만들어 깔았으리라 추측했다. 제주도 민가에서는 통상 「검질」(풀의 일종으로 잡초임)을 맨바닥에 깔고 생활했으므로 선사인에게는 돛자리가 조금 화려할 수 있으나 생활하는데는 반(半)의자식의 방석(잡초 등의 뭉치), 잠자리는 보다 편안한 돛자리를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움집 안 상부에는 실경을 만들어 매달았다. 가는 나무로 울거미를 만들고 가운데에 나무를 하나 가로질러 열추 묶은 것이다. 예전 민가에서 이보다는 훨씬 낮지만 흔히 사용하던 건축시설물이다. 움집 내부에는 적당히 물건을 달아 매거나 걸어 놓을 수 있는 코쟁이를 만들어 두거나 설정해 둔다.

### 3. 복 원

#### (1) 움벽(평면)

움벽을 이루는 어깨선과 벽선은 상기조사 보고서의 도면이 축소되어 정확치 않았으므로 서울대학 박물관에서 실측도면을 빌려다가 참고하였다. 이 과정에서 설계도는 어느정도 무시되었다. 단 실측도에서 어깨선이 고르지 못한 것은 부드럽게 교정해서 만들었다. 어깨의 수평높이도 굴곡이 심한 부분은 완만하게 정리하였다. 특히 5호 집자리는 4호와 집이 겹쳐지는 관계로 정확히 동쪽으로 50cm 이동해서 만들었다.(서울대 박물관의 실측도는 개개의 집자리로 볼 때 정확하다고 여겨지나, 전체의 배치와 중횡 단면의 미비, 특히 기준점의 설치가 미약한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흙을 덮을 때 말뚝을 박은 지점도 정확히 수직을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면과 일치하지 않은 점이 많았다. 또한 수직고에 대한 고려가 여의치 못했다.)

#### (2) 기둥

3호 집자리는 큰 구멍들 중 위치가 네모꼴에 가까운 4개의 구멍을 선택하여 기둥을 배치했는데 도리선이 사다리꼴로 만들어져서 서까래를 걸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4호 집자리는 별로 애로가 없었으나 역시 기둥굽자리가 어깨선에 근접해 있으므로 기둥 좌우의 서까래를 걸기가 어려웠다. 5호는 네모꼴로 배치되어 있는 4개의 큰 기둥구멍에 기둥을 세웠다.

6호 집자리는 큰 구멍을 기준으로 했으므로 기둥구멍을 찾는다는 어렵지 않았으나 서까래를 거는데 가장 애를 많이 쓴 집이다. 11호 집자리는 사방 4개의 기둥자리에 기둥을 세우고 중앙 기둥은 고려되지 않았다.

기둥 굵기는  $\phi 140\text{cm}$  정도로서 비교적 가늘게 사용했다.(우리가 통상 체재목을 생각타가 원목을 대하니 너무 굵었다.) 당시 선사인들은 필요없이 부재를 굵게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둥은 대략 50cm 내외 깊이로 묻었으며 노출된 높이는 1.66M에서 1.87M까지로 보통 1.7M를 약간 넘는 정도인데 지붕의 물매를 열추 맞추다 보니 바닥 깊이가 깊은 5호는 높아지고

바닥 깊이가 얇은 11호는 낮아졌다.

각 부재는 돌로 다듬은 맛을 내기 위해 자귀로 각은 다음 거친돌로 쪼았으며 시공 중 재료의 껍질이 벗겨지지 않도록 노력하였다.(참나무는 껍질이 잘 벗겨지는 재질을 가졌다.)

### (3) 도리

도리는 힘을 받는 부재로서 많은 하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둥보다 굵게 설계되었다. 도리와 도리가 맞춰지는 네 귀는 너무 솟아 올라 수평이 맞지 않게 되므로 머리와 굽이 서로 교차되어 만나도록 고려하였고 굽과 굽이 만나는 것은 가능한한 피하였다. 이것은 시공상도 그렇지만 전통적 구조 기법의 한 속신으로 되었다.

### (4) 서까래

서까래 굽기는  $\phi 6\sim 8.5\text{cm}$  정도이며 평서까래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부득이한 경우 동서까래로 나누어 쓰지 않으면 안되었다. 당초 설계시 예상했던 굽기 보다는 가늘어졌으나 대신 그 갯수는 증가시켰으며 평서까래(긴 부재)를 쓰는 때가 많아졌다. 이것은 당초 예상했던 부재 굽기가 원목인 경우 너무 굵었기 때문이다.

시공의 순서상 서까래는 지상에 바로 놓고 움집 바닥을 정리하면서 나온 흙으로 어깨를 만들면서 서까래가 자연히 땅 속에 묻혔다. 묻힌 길이는 10~20cm 정도이다.

### (5) 바닥, 지반

유적의 보존을 위해 이미 발굴조사단에서 2M 내외의 성토를 했기 때문에 본 복원에서는 지표에서 다시 파들어가야 할 높이만을 더 덮었다. 그러나 너무 배가 불러서 시각상 부담을 준다는 김기웅 박사님의 지도에 따라 도로가 높은 북쪽 부분은 조금 낮추어서 미끄러지게 지반이 조성되도록 계획했다. 전체적으로 복토(復土)된 위에 50cm 이상 성토되었으리라 생각한다.

바닥의 어깨선으로부터의 깊이는 보고서에 실측된 그대로이다. 설계시에는 원래의 어깨가 많이 유실되었을 것으로 보고 움집 깊이가 낮은 것은 좀더 깊게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으나 이에 대한 고증이 불가능하다는 김기웅 박사님의 지도에 따라 유적지 원상대로 복원하였다. 다만 11호는 유실된 것이 확실하다 추정되므로 약간 높혀서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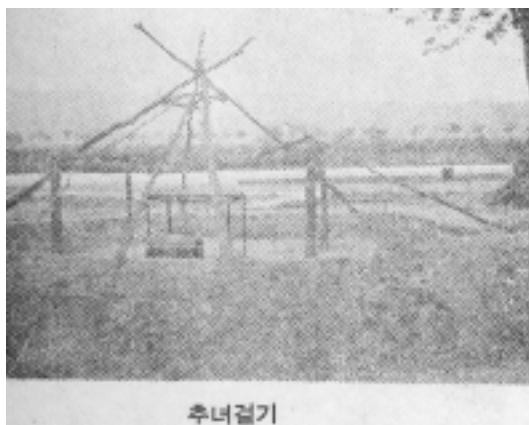
움집 내부의 바닥과 움벽, 어깨에는 평균 15cm 정도의 진흙을 발랐는데 이것은 고증에 따른 것이 아니고 외부의 물이 움 안으로 스며들까봐 방수층으로 만든 것이다. 진흙을 일일이 으개서 메로 치면서 덧붙였고 진흙이 마르면서 갈라지면 다시 한접을 덧발라서 실금이 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고증상 진흙을 바른 흔적은 없었으므로(다른 집자리에서 종종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있음) 그 위에 다시 원래의 이곳의 가는 모래층을 뿌려서 본 지반과 같은 느낌이 나도록 노력했다.

## 4. 맺는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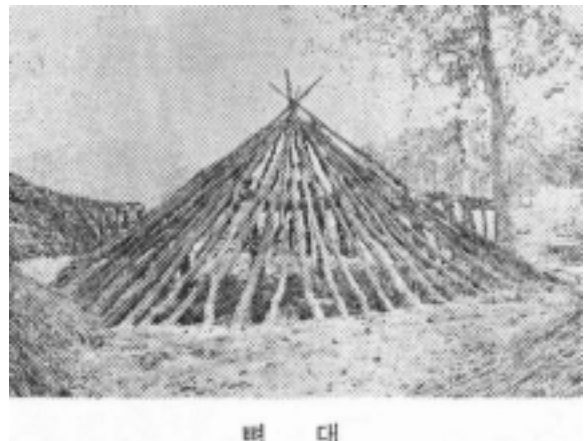
집자리를 도면으로 관찰하고 상상해서 복원도를 작성하는 것 보다는 직접 지어 보는 것이 훨씬 선사인의 구조기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여러사람에 의해서 오랜동안 지어진 구조물은 그것이 아무리 간이한 것일지라도, 다양성을 도외시해서는 곤란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떨굴 수가 없다. 또한 상상하는 가운데 너무 생각이 지나친 것도 적지 않다. 그 중 하나가 꽤 발달된 구조기법이 당시에 이미 개발되었으리라는 가정아래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이-예를들면 닭머리남, 산방남-설사 오랜 전통을 가진 기법이고 현존하는 유사한 구조물에서 같은 기법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과연 그럴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현시점에선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필자는 복원을 하면서 예전 선사인들이 그러했듯 정성을 다해 지어보는 것 뿐이었다. 그러나 의심스러운 점은 실험제작을 걸쳐 볼 때, 움집 하나 짓는데 (비록 여러번 뜯고 새로 지었으며 숙련되지 못했다할지라도) 재료 채취까지 거의 100품이상이 소요된다는 사실이다. 선사인이 과연 그 정도의 품을 들여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생활의 여력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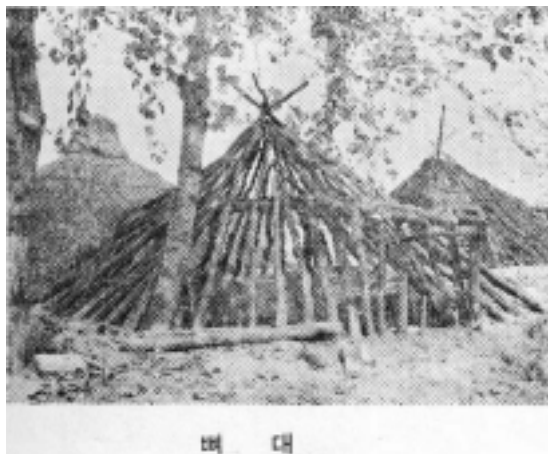
끝으로 이 공사를 행정 서식에 맞춰 진행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문화재관리국, 서울시 및 신일건설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본 복원을 끝까지 노심초사 지도해주신 김기웅 박사님, 김정기 연구소장님께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추녀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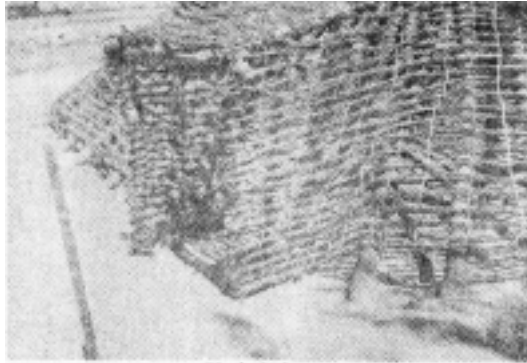
벼 대



벼 대



짜입새



닭머리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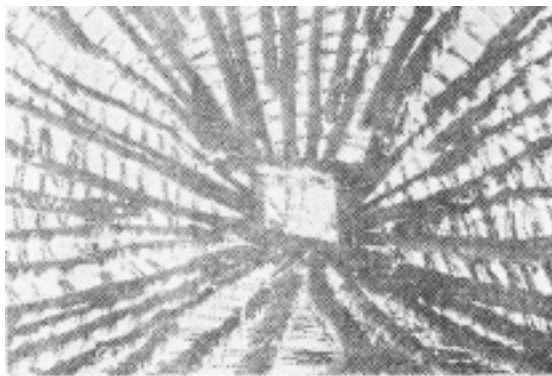
알뜰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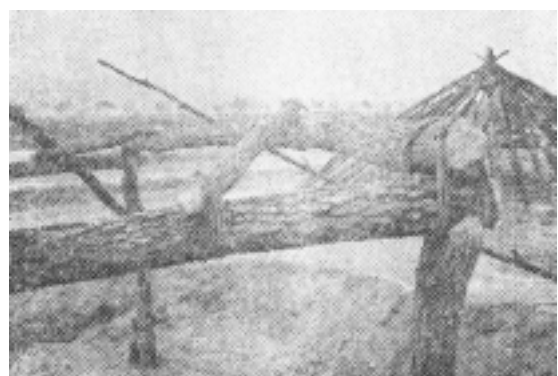
짜 입 새



도리실과 산방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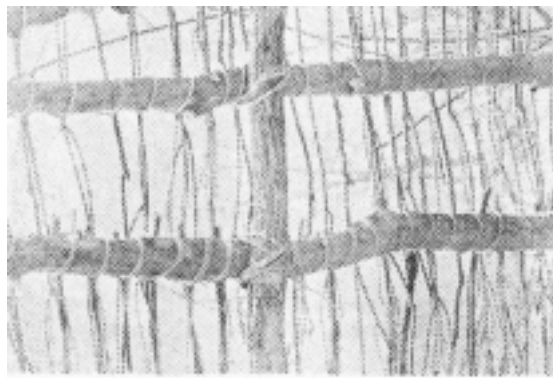
까치구멍과 닭 머리남



서 까 래



산 판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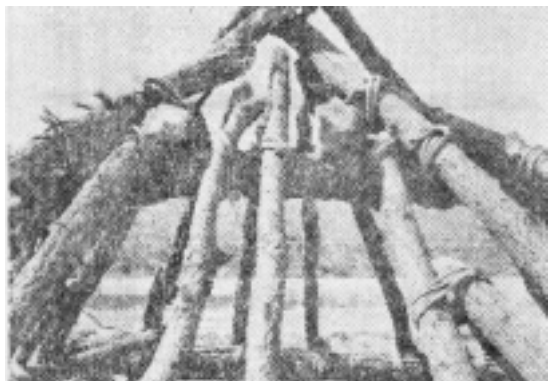
서까래 묶기



코산노 뜨기



나 래



너 시 래



화 근



너시래 엮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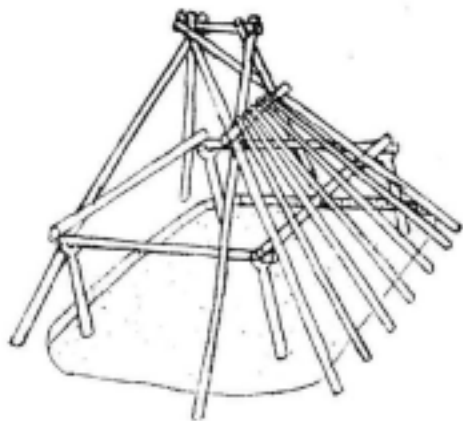
화 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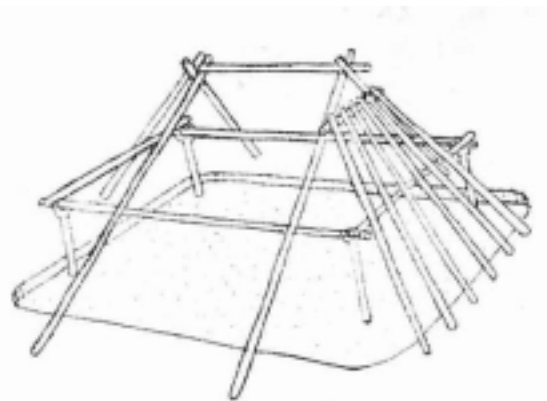
벼 대



집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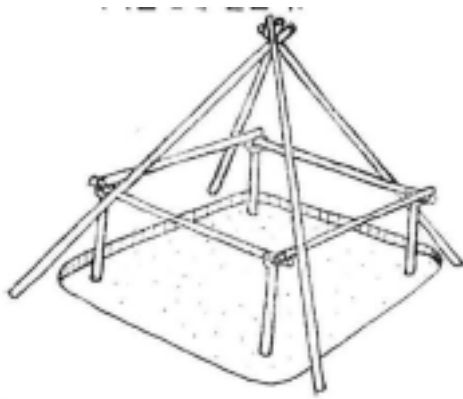


까치구멍을 측면에 두는 벼대 가상도  
꼭지를 2개 만든다.



2꼭지 까치구멍집 가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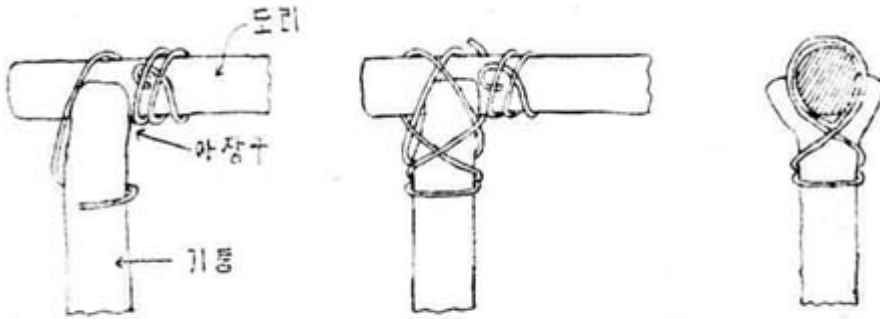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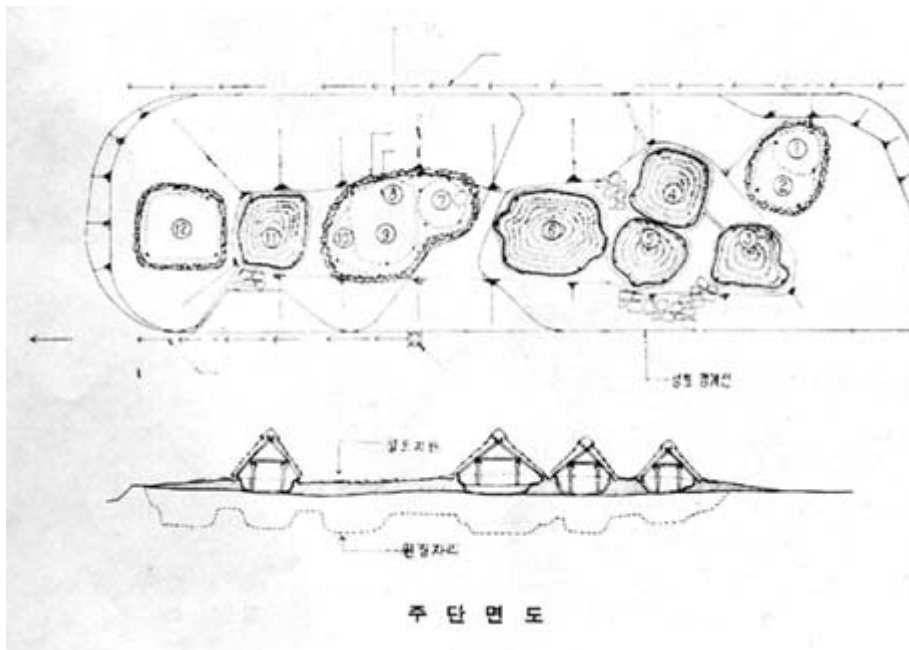
1쪽지 상다리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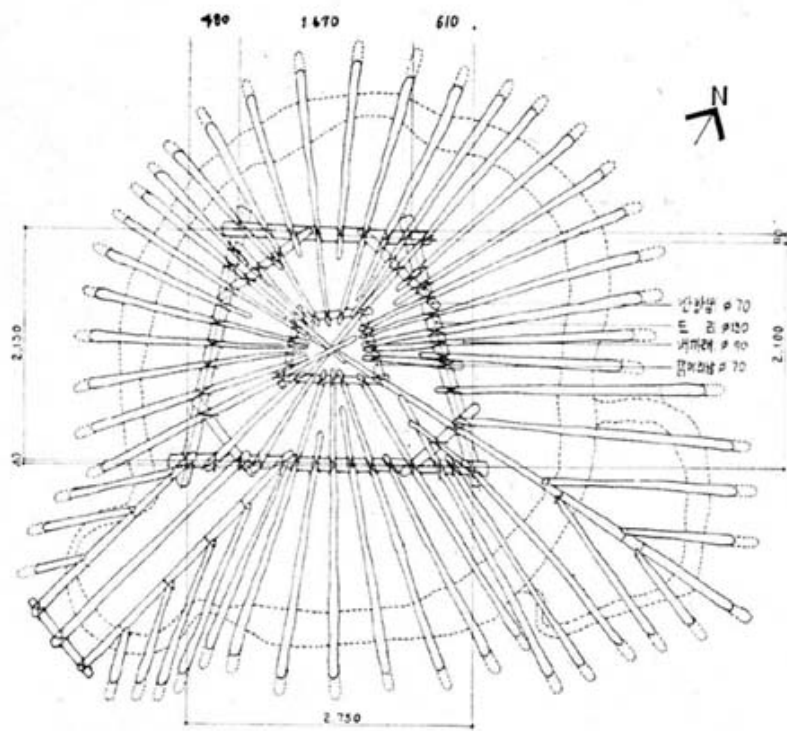
굴맷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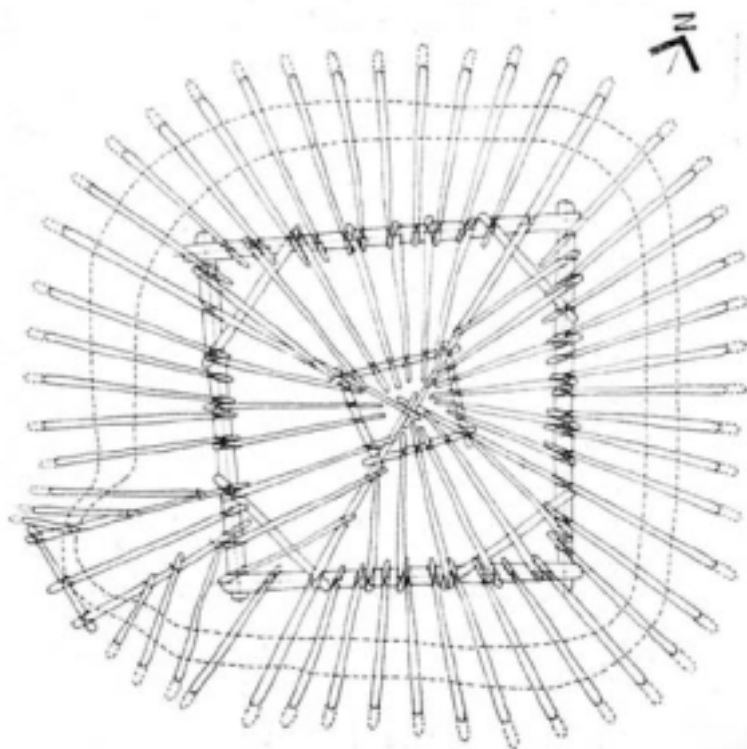
도리심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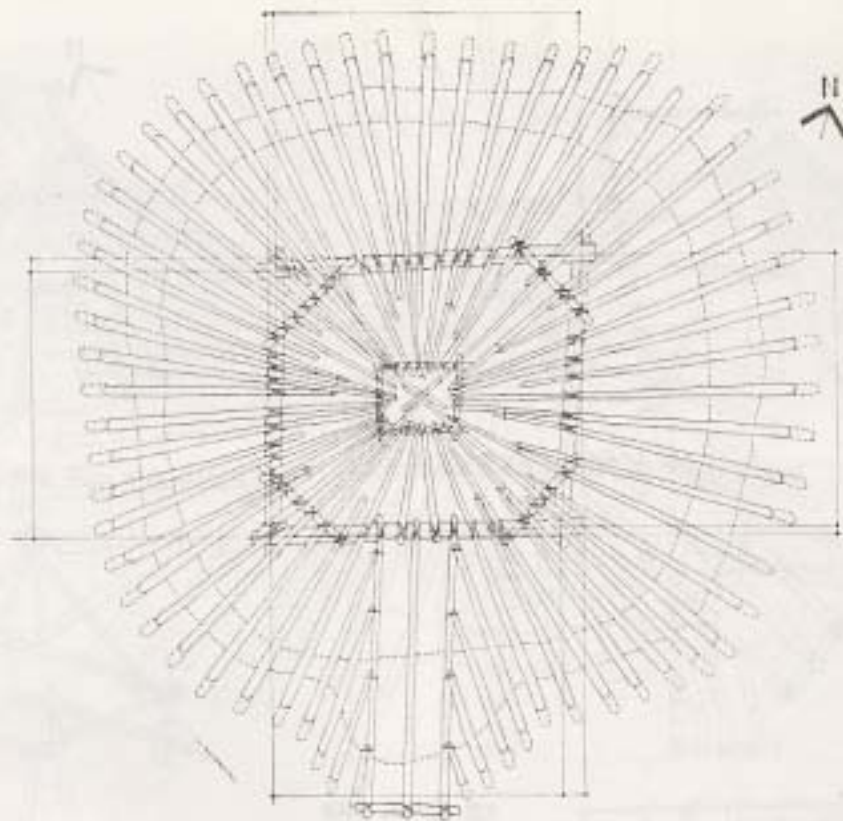
주 단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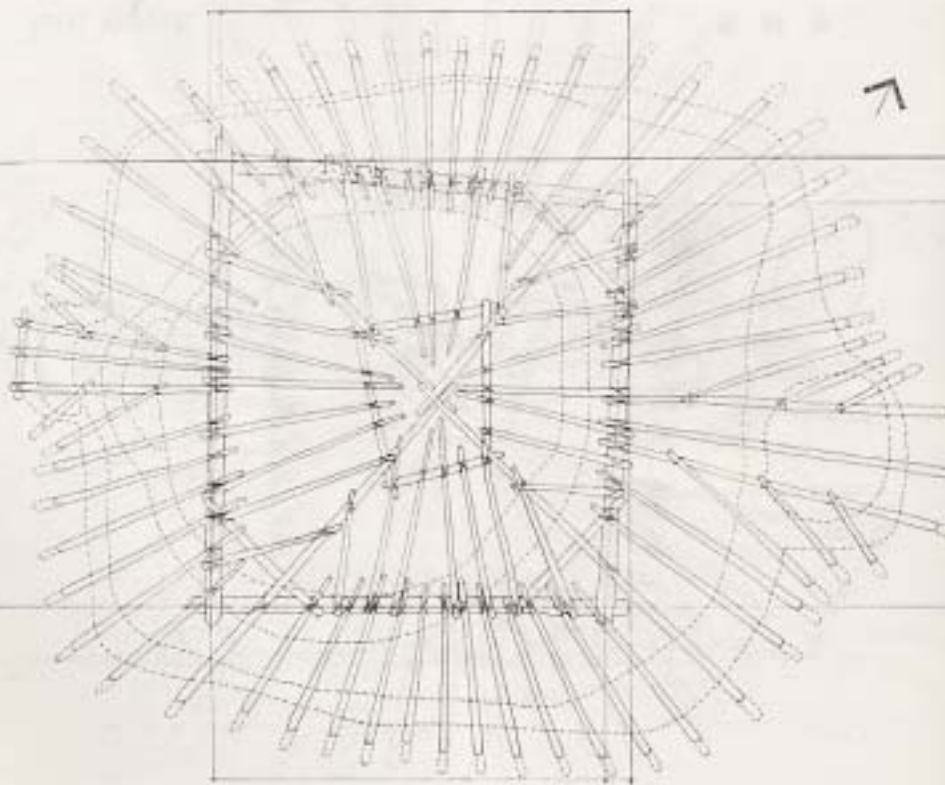
3호 집자리 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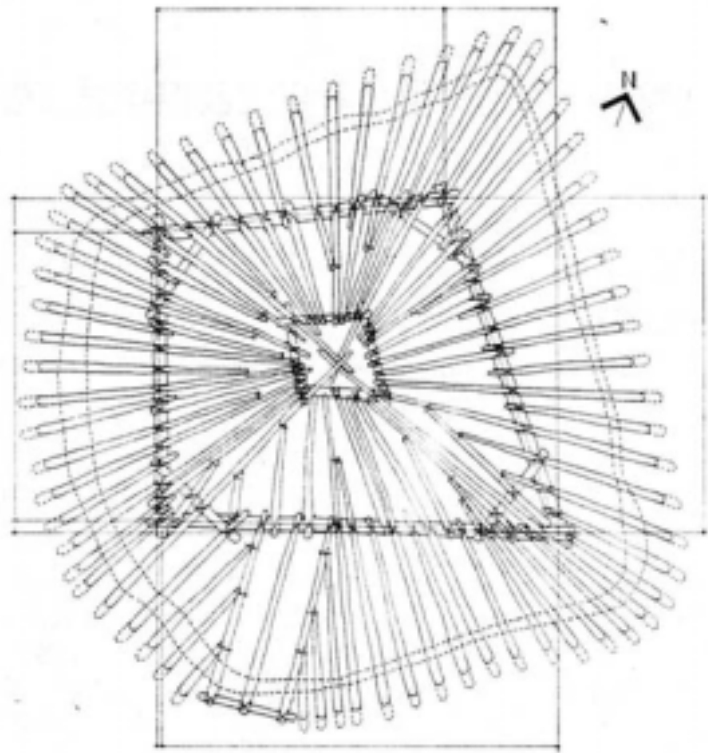
4호 집자리 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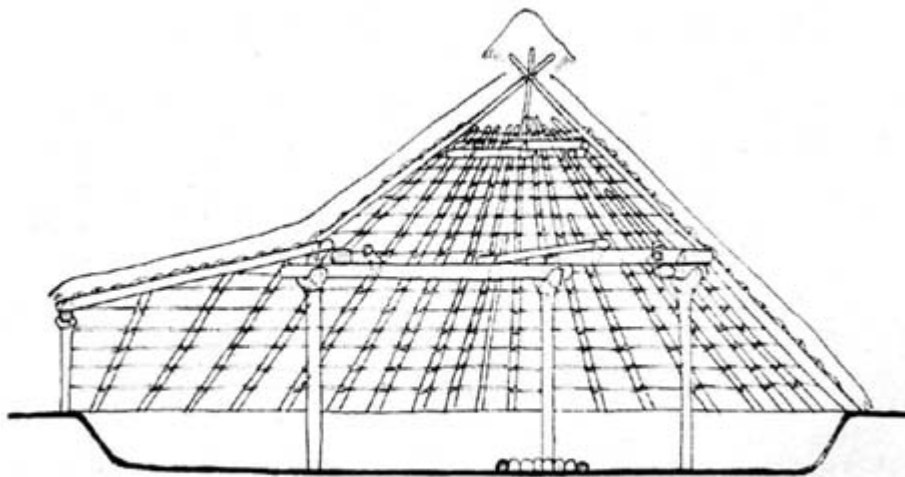
5호 짐자리 배대



6호 짐자리 배대



11호 집자리 배대



올집 단면도